

## 한국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진로발달 특성의 변화추이 분석\*

황매향(黃梅香)\*\*

김봉환(金鳳煥)\*\*\*

최인재(崔忍在)\*\*\*\*

허은영(許銀英)\*\*\*\*\*

### 논문 요약

이 연구는 한국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진로발달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200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IV-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 청소년들의 연령 증가와 함께 증가하는 진로관련 변인들을 탐색해 보았다.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IV-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조사」에는 중학생, 일반계 고교생, 전문계 고교생 6509명이 연구대상으로 표집되었다. 진로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진로발달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변인들로 일에 대한 가치(내적 가치, 외적 가치), 성공에 대한 귀인(내적 귀인, 외적 귀인), 진로미결정 수준, 진로준비행동, 진로·직업 역량을 선정하고, 각 변인들의 학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진로의사결정 준비성, 진로정보 탐색 행동, 합리적 의사결정과정 등에 대한 이해만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증가하였고, 다른 변인들에서는 연령증가에 따른 일관된 변화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청소년의 진로발달의 특성을 논의하고, 진로발달의 지표 개발에 대한 후속연구 및 진로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진로발달, 한국 청소년, 일에 대한 가치, 성공에 대한 귀인, 진로미결정 수준, 진로준비행동, 진로 역량, 직업 역량

\* 이 논문은 2009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과제인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IV-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경인교육대학교 조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서울백석중학교 교사

## I. 서론

아동 및 청소년의 진로발달 단계는 미국 Ginsberg 등(1951)의 종단연구 이후 꾸준히 검증되어 오고 있지만(Super, 1953, 1984, 1996; Gottfredson, 1981, 1996, 2003),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학자들이 제시한 진로발달 단계를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이 진로발달에 그대로 적용해 오고 있다. 진로발달의 결과는 진로성숙도로 나타나는데, 실제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 않는다(임언, 정윤경, 상경아, 2001). 이를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진로의 측면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러한 결과를 바라보는 다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분명히 진로 영역에서 발달하고 있지만 진로발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진로성숙도 측정도구가 우리나라 학생들의 진로발달에 민감하지 못한 척도라는 것이다. 진로발달은 어느 영역보다 사회·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으로 미국의 진로발달 단계와 그에 입각하여 상정된 구인과 그 검사 도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진로발달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해 지면서 후자의 입장이 지지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 진로교육에서 지향해야 할 학교급별 진로교육의 목표가 새롭게 정의되고(이영대 외, 2004),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진로발달 과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김인규, 임은미, 2007)도 수행되었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 학생들의 진로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태로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IV-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조사」의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학생들의 진로발달 경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진로발달 이론에서 제안된 진로발달 영역 및 진로발달 과업과 우리나라 진로교육과정의 목표 및 일반인들이 지각하는 진로발달 과업의 내용을 토대로 진로발달의 영역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진로의사결정의 핵심요소인 자기이해, 직업세계이해, 직업탐색 및 의사결정 기술이 거의 모든 이론과 연구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진로결정 정도와 진로의식에 해당하는 진로 및 직업의식, 학업, 대인관계, 성품개발 등 진로·직업 의식 및 진로준비에 해당하는 영역도 포함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IV-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조사」의 자료를 검토하여 일에 대한 가치, 성공요인에 대한 귀인, 진로미결정 수준, 진로준비행동, 진로·직업 역량 등을 진로발달의 주요 영역으로 선정하고, 각 영역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진로에 대한 발달적 관점은 Ginzberg, Ginsburg, Axelrad 및 Herma (1951)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Ginzberg 등의 진로발달이론은 1930년대 후반 이래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진행되어 왔던 인적자원에 관한 연구라는 광범위한 연구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개발된 것으로 경제학자, 정신의학자, 사회학자, 심리학자가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했던 것이다. 이들은 10년이 넘는 종단적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직업선택이 삶의 어느 특정시기에 이루어지는 일회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크고 작은 일련의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기본가정을 갖게 되었고, 1972년과 1984년 두 차례 수정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이희영, 2003). Ginzberg 등(1951)의 종단연구에서 출발하여 Super(1953), Crites(1961), Gottfredson(1981)에 이르는 진로에 관한 발달론적 입장에서는 자기이해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능력이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 것에 주목하며, 진로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도로서의 진로발달 정도를 진로성숙도로 명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진로발달 이론과 진로성숙의 개념을 큰 틀의 수정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지만, 진로교육목표 관련 연구와 진로발달 과업의 인식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진로발달 특성을 탐색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진로발달을 알아보기 위한 진로발달의 영역 선정에 있어 서구의 진로발달 모형과 우리나라의 경험적 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Super의 진로발달 모형

진로발달의 지표로서 진로성숙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했던 Super(1955)는 1974년에 청소년들의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발달시켜야 할 진로발달의 차원을 6가지로 제안하고 있다: ① 진로선택에 대한 태도: 앞으로 해야 할 진로결정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태도 측면; ② 직업에 대한 정보와 계획: 미래 진로결정 및 이미 성취된 과거의 계획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구체성과 관련된 능력 측면; ③ 직업선호도의 일관성: 선호도에 있어서의 개인의 일관성; ④ 특성의 구체화: 자아개념 형성을 향한 개인적 과정; ⑤ 직업적 독립성: 일의 경험에서의 독립성; ⑥ 직업선호의 현명성: 개인적 과업과 일관된 현실적인 선호를 가질 수 있는 능력적 측면(Zunker, 1994: 33-3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러 경험적 연구를 통해 Super의 이론적 모형을 검증한 결과, 청소년 진로발달의 이론적 모형은 ① 생애발달단계와 과업에 대한 계획적 태도, ② 탐색에 대한 태도, ③ 교육정보 및 직업정보, ④ 의사결정 원리와 실제에 대한 지식, ⑤ 현실성의 5차원으로 다시

정리되었다. 진로유형연구에서 마지막 차원인 현실성이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Super와 그의 동료들은 현실성을 제외한 4가지 차원을 측정할 수 있는 진로발달검사(Career Development Inventory, CDI)를 개발하였다. CDI는 '적합한(sound) 교육 및 직업 선택에 대한 학생들의 준비도를 측정하기 위해' 제작되었다(Thompson et al., 1981). Super의 진로발달검사는 진로계획, 진로탐색, 의사결정 기술, 일의 세계에 대한 정보, 자신이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직업세계에 대한 지식 등을 진로발달의 주요 영역으로 구성하고 있다.

## 2. Crites의 진로발달 모형

1961년 자신의 진로발달 모형을 처음으로 제안했던 Crites는 1978년 지능위계 모형이 기본 틀을 활용하여 진로발달 모형의 위계 모형을 검증하였다(Crites, 1996). Crites의 진로발달 모델에 따르면 진로발달의 결과인 진로성숙도는 요인의 위계체제를 가지고 있다. 지능검사의 일반요인인  $g$  요인과 유사한 진로성숙도의 일반적 요인이 있고, 몇몇의 영역(group) 요인이 있고, 수많은 특수(specific) 요인이 있다고 한다. 영역 요인은 진로계획 내용(일관성 및 진로선택의 범위)과 진로계획 과정(태도 및 능력)의 두 가지이다. 즉, 이 모형에 의하면 진로성숙은 진로선택의 내용과 진로선택의 과정으로 구분된다.

Crites(1978)는 진로발달 프로젝트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진로 발달의 정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진로성숙도 검사(Career Maturity Inventory, CMI)를 개발하여 진로발달 모형을 검증하였다. 이 검사는 진로선택의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고, 결정성, 참여도, 독립성, 성향, 타협성을 진로의 사결정에 대한 태도로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선정, 계획, 문제해결을 진로계획 능력으로 포함하고 있다.

## 3. 미국 진로발달지침에서 제안한 진로발달 과업

미국에서는 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로발달 프로그램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진로발달지침(National Career Development Guidance, NCDG)이라는 국가 수준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NOICC, 1996). 미국 진로발달지침은 진로발달 능력 및 지표, 조직적인 역량, 프로그램 운영인력의 요건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진로발달 능력과 지표 부분이 학생들의 진로발달과 관련된다. 진로발달 능력 및 지표(competencies and indicators)에서는 초등학생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진로발달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결과 및 성취 행동을 영역 및 수준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진로발달 역량 및 지표는 진로교육 및 진로발달 프로그램의 내용 요소일 뿐만 아니라 목표로 역할하는데, 자기 이해

(self-knowledge), 학업 및 직업적 탐색(educational and occupational exploration), 진로계획(career planning) 등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령별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의 네 단계로 구분한 뒤, 각 연령 단계별로 12개의 진로발달 능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 진로발달 능력은 일반적인 진로발달 목적을 의미한다.

#### 4. 진로발달 과업에 관한 우리나라 일반인들의 인식

김인규와 임은미(2007)는 초, 중, 고등학생의 단계별 진로발달 과업에 대한 일반인의 암묵지를 탐구하였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은 20개,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는 각각 23개, 고등학교는 27개가 진로발달과업으로 추출되어 우리나라 일반인들은 청소년의 발달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수행해야 할 진로발달과업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진로발달 과업을 영역으로 분류해 본 결과, 진로관련 자기이해, 진로탐색과 결정, 능력개발 등 진로발달이론에서 제안한 발달과업의 영역이 추출되었고, 이와 함께 일상생활 과제수행, 대인관계, 성품개발 등의 새로운 영역이 추출되었다. 즉, 일반인들은 진로발달 과업의 개념에 직업선택에만 국한하지 않고, 이후 직업생활에서의 적응을 위한 능력의 개발까지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진로발달과업의 내용

초등학교 저학년(20)*	초등학교 고학년(23)	중학교(23)	고등학교(27)
진로관련 자기이해(5)	진로관련 자기이해(5)	진로관련 자기이해(5)	진로관련 자기이해(3)
-	진로탐색과 결정(3)	진로탐색과 결정(7)	진로탐색과 결정(14)
능력개발(4)	능력개발(5)	능력개발(5)	능력개발(4)
일상생활 과제수행(6)	일상생활 과제수행(5)	일상생활 과제수행(1)	일상생활 과제수행(4)
대인관계(3)	대인관계(1)	대인관계(2)	대인관계(2)
성품개발(2)	성품개발(4)	성품개발(3)	-

\*( ) 안은 항목수

#### 5. 우리나라에서 제안된 진로교육 목표

지금까지의 국내 진로교육의 목표 및 내용 체계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특성에 기인하여 국가 수준에서 논의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 출발점은 한국교육개발원(장석민 외, 1985)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이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장석민(2001)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1985년에 발행한 “진로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를 한 단계 발전시켜, 학교급별 진로교육의 목표와 내용 체계를 재정립하였다. 장석민은 진로교육의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지

연, 진미석, 정운경, 1998; 장석민 외, 1985; Howard & Stewart, 1990)에 대한 문헌 분석과 설문지 결과 분석,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정립된 진로교육의 목표 및 내용 체계를 학교급별로 제시하였다.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안한 진로교육의 목표 및 내용 체계는 '자아 이해', '일과 직업 세계', '일과 직업에 대한 태도와 습관 형성', '일과 학습', '진로계획' 등 5개의 영역을 범주로 삼고 있다.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이영대 외, 2004)는 학령기에서 성인에 이르는 전생애에 걸친 진로개발을 지원함에 있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틀로서 활용할 수 있는 생애 단계별 진로교육의 목표 및 내용의 체계를 수립하였다. 국내 선행연구 및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의 진로 교육 목표 및 내용을 중심으로 초안을 작성하고, 전문가의 검토 과정을 거쳐 진로발달 단계를 5단계로 구분하였다. 진로교육의 영역은 선행 연구,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① 자기이해 및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형성·유지, ②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③ 평생학습의 중요성 인식 및 참여, ④ 진로정보의 탐색, 해석, 평가, 활용, ⑤ 일, 사회, 경제 관계의 이해, ⑥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와 습관, ⑦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진로계획수립, ⑧ 진로계획의 실천, ⑨ 효과적인 구직·직업유지·전환능력 등 모두 9개의 진로교육 영역을 도출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안한 9개 진로발달 영역은 실제 다른 영역의 발달과 교차되는 부분이 있어, 진로발달의 의미를 넓게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평생학습의 중요성 인식 및 참여와 효과적인 구직·직업유지·전환능력의 경우, 이 영역들은 전생애적 관점에서 추출된 것으로 초·중·고 시기 목표 및 내용은 주로 학업을 충실히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09년 5월부터 7월에 걸쳐 실시한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IV-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조사」에 참여한 중학생과 고등학생 6,509명이 응답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조사의 모집단은 전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층화다단계집단표집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목표표본은 '2008년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된 전국 중·고등학교 현황을 표집틀로 하여 목표표본수를 계산하였다. 표본 추출은 전국을 12개 시도별, 지역별 층화를 한 후 층화 지역별 학생 수에 비례하여 목표 표본수를 할당하였다. 이후 할당 표본수에 따라 추출 학교수를 결정하였고, 1개 학교에서 1개 학년 추출 후 1개 학급 전원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중학교, 일반계·전문계·예체능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골고루 표집되었다. 또한 표본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학년별 분포와 성별 분포를 분석해

본 결과 <표 2>과 같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조사대상의 학년별·성별 분포

학년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중 1	462	47.7	506	52.3	968	100
중 2	546	53.3	478	46.7	1,024	100
중 3	524	51.5	494	48.5	1,018	100
고 1	692	56.0	544	44.0	1,236	100
고 2	633	52.0	584	48.0	1,217	100
고 3	630	60.2	416	39.8	1,046	100
전 체	3,487	53.6	3,022	46.4	6,509	100

## 2. 연구 도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진로발달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IV-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조사」에 사용된 조사 도구의 일부 영역을 선택하고 그 영역의 문항에 대한 응답 내용을 분석하였다.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IV-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조사」에서 개발하고 타당화한 문항과 영역을 그대로 사용하여 이 연구에서 별도의 타당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진로발달의 영역으로 일에 대한 가치, 성공요인에 대한 귀인, 진로미결정 수준, 진로준비행동, 진로·직업 역량을 선정하였고, 일에 대한 가치는 내적 가치 추구하고 외적 가치 추구로 성공요인에 대한 귀인은 내적 귀인과 외적 귀인으로, 진로미결정 수준은 결정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진로준비행동은 정보를 탐색하는 탐색행동과 자신이 정한 진로에 진입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준비행동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분류하고, 진로·직업 역량은 역량의 영역에 따라 자기이해, 직업세계이해, 의사결정의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누었다. 또한 각 문항으로 구성된 하위 척도들의 요인 수렴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각 하위척도별 내적 합치도를 산출한 결과 적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각 변인을 구성하는 문항 번호와 각 하위척도별 내적 합치도 계수는 <표 3>과 같다.

&lt;표 3&gt; 하위 척도별 문항 번호 및 내적 합치도 계수

하위 척도		문항 번호	Cronbach's $\alpha$
일에 대한 가치	내적 가치 추구	문1의 1,2,5,6,7,8,9,10,11,12	.805
	외적 가치 추구	문1의 3,4,13,14,15	.724
성공요인 귀인	내적 귀인	문2의 2,3,5,6,10,11	.812
	외적 귀인	문2의 1,4,7,8,9	.659
진로미결정	결정성	문3의 1,2,3	.887
	확신성	문3의 4,5	.766
	준비성	문3의 6,7,8	.735
	독립성	문3의 9,10	.711
진로 준비행동	진로탐색	문8의 1,2,3,4,5,6	.715
	진로개발	문8의 7,8,9,10	.707
진로·직업 역량	자기이해	문21의 1,2,3,4	.802
	직업세계이해	문21의 5,6,7,8,9,10,11	.876
	의사결정	문21의 12,13,14,15,16,17,18,19,20,21	.888

## IV. 연구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진로 발달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선정한 일에 대한 가치(내적 가치, 외적 가치), 성공요인에 대한 귀인(내적 귀인, 외적 귀인), 진로미결정 수준, 진로준비행동, 진로·직업 역량의 학년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 1. 일에 대한 가치의 발달

청소년 시기는 생애가치관 발달과 함께 일에 대한 가치관(직업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특히, 발달과정을 거치면서 일에 대한 외적 가치보다 내적 가치를 추구할 것이 기대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09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조사」에 참여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응답한 내용을 학년에 따라 그 차이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외적 가치의 감소나 내적 가치의 감소가 일관되게 발견되지 않아, 이러한 변화가 발달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표 4>와 <표 5>는 일에 대한 내적 가치 추구하고 외적 가치 추구의 학년별 차이를 정리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내적 가치를 추구하는 수준보다 외적 가치를 추구하는 수준이 높았다. 특히, 외적 가치 추구의 경우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유의미하게 높아지고 그 이후 유사



한 수준에 머물렀다. 즉,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만 변화를 보이고 있어 연령에 따라 꾸준한 증가를 보인다고 하기 어렵다.

<표 4> 내적 가치 추구의 학년별 차이

학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중 1	959	3.94	.53	1.046	.389	.
중 2	1,020	3.93	.51			
중 3	1,014	3.92	.52			
고 1	1,232	3.94	.52			
고 2	1,203	3.92	.52			
고 3	1,031	3.96	.55			
전 체	6,459	3.93	.52			

<표 5> 외적 가치 추구의 학년별 차이

학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중 1	957	3.92	.60	4.512	.000	중1<중2, 중3,고1, 고2,고3
중 2	1,018	3.98	.59			
중 3	1,016	3.98	.62			
고 1	1,236	4.03	.61			
고 2	1,214	4.00	.62			
고 3	1,041	4.00	.64			
전 체	6,482	3.98	.62			

## 2.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에 대한 귀인의 발달

청소년 시기가 되어 미래의 자신의 직업생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직업에서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인식도 발달하게 된다. 또한 연령이 증가하면서 돈이나 운과 같은 외적 요인보다는 성실성이나 자기개발과 같은 내적 요인이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에 더 중요하다는 점도 알게 된다.

이러한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에 대한 내적 귀인과 외적 귀인의 학년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학년에서 내적 귀인 수준이 외적 귀인 수준보다 높았다. 즉,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일에서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외적 환경보다는 자신이 하기 나름이라는 바람직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6&gt; 성공요인에 대한 내적 귀인의 학년별 차이

학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중 1	953	4.27	.56	3.747	.002	중1,중2, 중3,고2< 고1,고3
중 2	1,020	4.23	.56			
중 3	1,017	4.26	.55			
고 1	1,233	4.31	.54			
고 2	1,209	4.26	.54			
고 3	1,041	4.32	.56			
전 체	6,483	4.28	.55			

&lt;표 7&gt; 성공요인에 대한 외적 귀인의 학년별 차이

학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중 1	965	3.75	.66	2.901	.013	중1>중2, 중3,고1, 고2,고3
중 2	1,023	3.69	.66			
중 3	1,016	3.70	.65			
고 1	1,233	3.69	.70			
고 2	1,214	3.65	.64			
고 3	1,041	3.67	.66			
전 체	6,492	3.69	.66			

그러나 내적 귀인의 수준이나 외적 귀인의 수준이 모두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일관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내적 귀인의 경우 중학생들보다는 고등학생들이 더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고등학교 2학년은 예외였다. 외적 귀인의 경우 연령에 따른 변화를 거의 보이지 않았고, 중학교 1학년 집단만이 다른 학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외적 귀인을 보였다. 즉, 일에 대한 가치 추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연령 증가에 따른 예상되는 발달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 3. 진로의사결정 수준의 발달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 수준 역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구인이다. 어릴 때는 진로미결정의 상태에 있는 것이 발달적으로 정상이라고 간주되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진로미결정 상태에서 결정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 진로결정 수준은 현재 얼마나 진로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인가를 나타내는 결정성, 그 결정에 대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확신성, 진로의사결정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준비성,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얼마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독립성 등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 각 하위 요인에서의 수준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해 본 결과는 <표 8>, <표 9>, <표 10>, <표 11>과 같다.

전반적인 진로의사결정 수준으로 볼 때 결정성과 확신성 수준은 준비성과 독립성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인다. 즉, 진로의사결정을 위해 정보를 구하려고 노력하거나 스스로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태도 면에서는 대체로 “그렇다”에 가까운 평균을 보이고 있지만, 진로를 결정한 여부나 그 결정에 대한 확신에 있어서는 보통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진로의사결정 수준의 연령별 변화에서는 준비성만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각 학년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반면, 결정성, 확신성, 독립성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표 8> 진로의사 결정성의 학년별 차이

학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중 1	966	3.22	1.05	14.946	.000	중2,고2< 중3,고1< 중1,고3
중 2	1,021	2.97	1.07			
중 3	1,018	3.06	1.07			
고 1	1,235	3.04	1.04			
고 2	1,214	2.92	1.05			
고 3	1,042	3.23	1.09			
전 체	6,496	3.07	1.07			

<표 9> 진로의사결정 확신성의 학년별 차이

학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중 1	965	3.19	.99	8.428	.000	고2<고1< 중2,중3< 중1,고3
중 2	1,021	3.13	.96			
중 3	1,015	3.10	.98			
고 1	1,233	3.06	.94			
고 2	1,215	2.97	.93			
고 3	1,041	3.18	.97			
전 체	6,490	3.10	.96			

<표 10> 진로의사결정 준비성의 학년별 차이

학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중 1	964	3.64	.86	57.149	.000	중1,중2< 중3<고1, 고2<고3
중 2	1,019	3.64	.83			
중 3	1,014	3.78	.80			
고 1	1,231	3.91	.82			
고 2	1,217	3.97	.81			
고 3	1,044	4.11	.74			
전 체	6,489	3.85	.83			

&lt;표 11&gt; 진로의사결정 독립성의 학년별 차이

학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중 1	965	3.81	.98	2.635	.022	고2<중1, 중2,중3, 고1<고3
중 2	1,021	3.83	.90			
중 3	1,016	3.75	.94			
고 1	1,235	3.78	.92			
고 2	1,214	3.73	.91			
고 3	1,044	3.84	.89			
전 체	6,495	3.79	.92			

#### 4.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진로준비행동이란 앞으로의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 실제 얼마나 활발히 행동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거나 진로정보를 찾아보는 것과 같은 진로정보 탐색 행동과 실제 결정된 진로로 나아가기 위한 능력개발을 하는 등과 같은 진로개발 준비 행동으로 나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진로정보 탐색 행동의 수준은 <표 12>와 같다. 전체적으로 평균이 보통 이하로 활발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정보 탐색 행동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중요한 발달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lt;표 12&gt; 진로정보 탐색 행동의 학년별 차이

학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중 1	956	2.67	.97	38.267	.000	중1,중2< 중3<고1, 고2<고3
중 2	1,016	2.66	.72			
중 3	1,013	2.83	.75			
고 1	1,230	2.95	.75			
고 2	1,209	2.91	.71			
고 3	1,043	2.99	.74			
전 체	6,467	2.84	.75			

진로개발 준비 행동 역시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이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은 진로개발 준비 행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학년별 변화를 보면, 비교적 학년별 차이가 적고 연령 증가와 일관된 변화를 보이지도 않는다.

&lt;표 13&gt; 진로개발 준비 행동의 학년별 차이

학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중 1	956	2.87	.87	8.449	.000	중2,고2< 중1,중3, 고3<고1
중 2	1,015	2.74	.83			
중 3	1,012	2.85	.83			
고 1	1,229	2.91	.82			
고 2	1,214	2.73	.80			
고 3	1,043	2.80	.83			
전 체	6,469	2.82	.83			

## 5. 진로·직업 역량의 발달

진로·직업 역량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정도,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정도,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 정도로 구성된다. 먼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보고한 자기이해 정도는 평균 보통과 대체로 그렇다 사이로 높은 편이었다(<표 14> 참조). 자신의 특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학년별 자기이해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 차이를 보면, 중학생들의 자기이해 수준이 고등학생들의 자기이해 수준보다는 높아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기이해 수준이 높아진다는 진로발달 이론을 지지하면서도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는 다시 하락을 보이고 있어 연령 증가에 따라 일관되게 증가하는 변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lt;표 14&gt; 자기이해 수준의 학년별 차이

학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중 1	955	3.53	.97	10.356	.000	중2<중1, 고2<고1 <중3,고3
중 2	1,013	3.45	.72			
중 3	1,009	3.63	.75			
고 1	1,228	3.58	.75			
고 2	1,205	3.53	.71			
고 3	1,042	3.67	.74			
전 체	6,452	3.56	.75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 반면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이 보통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자기이해 수준보다는 학년에 상관없이 모두 더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가 연령에 따라 높아지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학년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그 변화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학년에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다.

<표 15> 직업세계이해 수준의 학년별 차이

학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중 1	946	3.16	.79	7.526	.000	고2<중1, 중2<중3, 고1,고3
중 2	1,008	3.10	.81			
중 3	1,007	3.23	.76			
고 1	1,227	3.19	.75			
고 2	1,201	3.06	.75			
고 3	1,033	3.19	.78			
전 체	6,422	3.15	.78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대체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별 합리적 의사결정과정 이해 수준은 <표 1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는 학년이 높아지면서 꾸준히 증가하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

<표 16> 합리적 의사결정과정 이해 수준의 학년별 차이

학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중 1	949	3.67	.79	6.562	.000	중1,중2< 중3<고1, 고2,고3
중 2	1,002	3.70	.81			
중 3	1,005	3.75	.76			
고 1	1,222	3.78	.75			
고 2	1,197	3.79	.75			
고 3	1,032	3.79	.78			
전 체	6,407	3.75	.78			

## V. 논의

이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진로발달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IV-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조사」에 참여한 중학생과 고등학생 6,509명의 응답내용 중 진로발달 정도를 나타내는 내용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일에 대한 직업가치 추구,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 진로의사결정, 진로준비행동, 진로·직업 역량에 대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까지 학생들의 지각 내용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일에 대한 직업가치 추구는 내적 가치 추구하고

외적 가치 추구로,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진로의사결정은 결정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으로, 진로·직업 역량은 자기이해, 직업세계 이해, 합리적 의사결정과정 이해로 하위 영역을 설정하였다.

먼저, 전반적인 발달 수준으로 볼 때, 일에 대한 가치 추구와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진로의사결정과 진로준비행동에서는 낮은 수준을 보였고, 진로·직업 역량은 중간 정도의 수준을 보였다. 진로의사결정에서는 결정성과 확신성이 특히 낮았고, 진로·직업 역량에서는 직업세계 이해 수준이 특히 낮았다. 즉,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진로발달 영역 가운데, 진로의사결정 수준,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확신, 진로준비행동, 직업세계 이해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진로교육과 진로지도 프로그램에서 더욱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라고 하겠다.

둘째, 각 영역의 학년별 변화를 통해 발달양상을 살펴본 결과를 보면, 진로의사결정 준비성, 진로정보 탐색 행동,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만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높아짐이 확인되었다. 즉, 이 세 가지 영역은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진로발달 정도를 또래들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진로성숙도라는 하나의 큰 개념으로 진로발달에 접근하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진로발달 양상에 대한 이견들이 많았는데, 이와 같이 영역별 발달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진로발달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진로발달이 지체되고 있다고 보기 보다는, 어떤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인해 진로발달을 보이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나타나는지를 밝히는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나머지 발달 영역은 이론적으로 연령에 따라 증가할 것이 기대되지만, 이 연구에서 얻은 자료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에 대한 가치 추구와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 지각은 이미 너무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연령이 높아지면서 변화하기 어려운 요인들이다. 일에 대한 가치의 경우 내적 가치와 외적 가치를 모두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수준도 다른 연구(선혜연, 황매향, 김영빈, 2009)에서 확인된 수준보다도 높다. 이러한 모든 직업가치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모습은 가치가 분화되지 못한 발달지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에 대한 지각 역시 모두 높은 점수를 보여 어떤 것에 집중하여 자신의 진로개발을 해 나갈 것인지에 혼란을 겪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직업가치의 분화와 성공요인에 대한 현실감 향상이 앞으로의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진로발달에서 낮은 수준에 머문 진로의사결정 수준, 결정에 대한 확신성, 진로준비행동은 현재 청소년들의 진로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고민 사항에 대한 여러 연구들은 청소년들의 고민사항 중 진로 문제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김봉환, 김병석, 정철영, 2006). 진로미결정 상태는 발달적으로 자연스러운 상태일 수도 있

는데, 특히 중학교 2학년 시기와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결정성이 떨어지는 것은 진로결정을 요청받는 상황적 요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시기는 확신성이 가장 낮은 집단으로 나타났는데, 계열 선택을 앞둔 혼란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다. 진로준비행동 또한 낮은 수준을 보이는데, 결정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다면 진로탐색 행동을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활발히 나타나고 있지 않아 이 부분도 지도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진로발달 수준을 모두 응답자의 지각에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예를 들어, 고흥월(2007)의 연구에서 이미 의사결정을 했다고 응답한 대학생들의 결정 내용을 다시 검토해 본 결과 결정 상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진로발달 수준을 자기보고만으로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도 진로·직업 역량 중 자기이해 점수와 합리적 의사결정과정 이해 점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자기 보고 자료와 함께 관찰자료, 포트폴리오, 수행평가 등 보다 객관화된 지표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진로발달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년별로 집단을 나누고, 각 진로발달 영역의 학년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횡단적 분석으로 진정한 발달과정으로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을 통해 실제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발달 궤적을 종단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고홍월 (2007).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 성숙수준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봉환, 김병석, 정철영 (2006). **학교진로상담**(제2판). 서울: 학지사.
- 김인규, 임은미 (2007). 초, 중, 고등학생의 진로발달과업에 대한 일반인의 암묵지 탐색. **아시아 교육연구**, 8(3), 223-245.
- 선혜연, 황매향, 김영빈 (2009). 청소년의 직업가치 추구 변화. **아시아교육연구**, 10(1), 155-173.
- 안창규 (1997). **진로발달검사 실시요강**. 서울: 한국가이던스.
- 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대, 임언, 이지연, 최동선, 김나라 (2004). **생애단계별 진로교육의 목표 및 내용 체계 수립**. 교육인적자원부.
- 이지연, 진미석, 정윤경 (1998). **한국인의 진로유형에 따른 진로교육모형 개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희영 (2003). **진로성숙과 상담**. 서울: 학지사.
- 임언, 정윤경, 상경아 (2001). **진로성숙도 검사 개발 보고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석민 (2001). **진로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화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석민, 한승희, 임재석, 서혜경 (1985). **진로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황매향, 김지현, 유정이 (2003). 중고등학생의 직업인식 발달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1(1), 3-12.
- Carter, H. D. (1940).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attitud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 185-191.
- Crites, J. O. (1961). A model for the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8(3), 255-299.
- Crites, J. O. (1978). *Career Maturity Inventory: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2nd ed.). Monterey, CA: CTB/McGraw-Hill.
- Crites, J. O. (1996). Assessment and counseling for career mastery. In M. L. Savickas & W. B. Walsh (Eds.), *Handbook of career counseling theory and practice* (pp. 237-250). Palo Alto: Davies-Black.
- Dysinger, W. S. (1950). Maturation and vocational guidance. *Occupations*, 29, 198-201.
- Ginzberg, E., Ginsburg, S. W., Axelrad, S., & Herma, J. L. (1951). *Occupational choic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Gottfredson, L. S.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6), 545-579.
- Howard, S., & Stewart, A. (1990). *Competency-based career development strategies and the national career development guidelines*. Center On Education and Training for Employment The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Ohio.
- National Occupational Information Coordinating Committee (1996). *National Career Development Guidelines: Trainer's manual*. Washington, D. C.: National Occupational Information Coordinating Committee.
- Strong, E. K., Jr. (1943). *Vocational interests of men and women*. Palo Alto: Stanford University Press.
- Super, D. 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 185-190.
- Super, D. E. (1955). Dimensions and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Teachers College Record, 57*(3), 151-163.
- Super, D. E. (1974). *Measuring vocational maturity for counseling and evaluation*. Washington, DC: National Vocational Guidance Association.
- Super, D. E. (1984). Career and life development.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pp. 192-234). San Francisco: Jossey-Bass.
- Thompson, A. S., Lindeman, R. H., Super, D. E., Jordaan, J. P., & Myers, R. A. (1981). *Career Development Inventory* (Vol. 1).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 Thompson, A. S., Lindeman, R. H., Super, D. E., Jordaan, J. P., & Myers, R. A. (1982). *Career Development Inventory: College and University Form. Supplement to user's manual*.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 Zunker, V. G. (1994). *Career counseling: Applied concepts of life planning* (4th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 논문접수 2010년 8월 2일 / 1차 심사 2010년 10월 5일 / 2차 심사 2010년 12월 5일 / 게재승인 2010년 12월 15일
- \* 황매향(黃梅香, Hwang, Mae Hyang):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와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대학원에서 교육상담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저서로는 “상담과 심리검사(공저)”, “진로탐색과 생애설계”, “학업상담”, “초등교사를 위한 문제행동 상담 길잡이(공저)”, “초등교사를 위한 다문화상담 길잡이(공저)” 등이 있다.
- \* E-mail : maehyang@ginue.ac.kr
- \* 김봉환(金鳳煥, Kim, Bong-Whan): 공주시범대학 교육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상담 전공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저서로는 “학교상담과 생활지도”, “학교진로상담” 등이 있다.
- \* E-mail : bongwhan@sm.ac.kr
- \* 최인재(崔忍在, Choi, In Jae): 중앙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심리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부모자녀관계, 청소년 심리 및 상담, 청소년 통계 등이다.
- \* E-mail : jae713@nypi.re.kr
- \* 허은영(許銀英, Heo, Eun Yeong):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를 졸업하고,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력개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백석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며, 주요저서로는 “우리반 집단상담(공저)”, “진로와 직업(공저)” 등이 있다.
- \* E-mail : hey4194@daum.net

Abstract

## Exploring Career Development of Korean Adolescents

Hwang, Mae Hyang\*

Kim, Bong-Whan\*\*

Choi, In Jae\*\*\*

Heo, Eun Y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areer development of Korean Adolescents. The data from "2009 Korea Youth indicators survey IV-Youth Career, Job Index" collected by Korea Institute of Youth Policy were analyzed. The subjects were 6,509 boys and girls from middle schools, general high schools, and vocational high schools. Occupational value(internal, external), attribution of career success(internal, external), career decision level(decidedness, assurance, readiness, independence), career preparation behavior(exploring, training), career competence(self understanding, work world information, understanding o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were analysed. Readiness of career decision making, career information exploring behavior, and understanding o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were increased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grades. It implies the career development of Korean adolescents might be similar to US in some areas. But the results of this study also imply the social-cultural differences might influence on the uniqueness of career development of Korean adolescents.

Key words : Korean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Occupational value, attribution of career success, career decision level,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competence

---

\* Assistant professor,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Professo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Associate Research Fellow,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Teacher, Seoul Beck-Seok Middle School